

장흥~제주 쾌속선 '오렌지호' 멈춘다

세월호·메르스 여파 이용객 '뚝'
2년간 누적 적자 53억원
목포·완도 등 과다경쟁 한몫
26일부터 3월까지 중단키로

한때 전국에서 제주를 오가는 가장 빠른 여객선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남~제주 간 쾌속선 시대를 연 장흥~제주(성산포) 간 '오렌지호'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제주 간 여객선 항만지역이 목포, 완도에 이어 해남과 여수 등으로 늘어나면서 선사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와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유다.

20일 장흥군과 JH페리 선사에 따르면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 성산포를 오가는 4114급 쾌속 여객선인 '오렌지호'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7월 2일 첫 운항을 시작한 장흥~제주 간 여객선(오렌지호)은 편도 기준 운항시간이 2시간대로 짧고, 승용차 등 차량도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호황을 누려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대 850명까지 승선이 가능한 오렌지호의 평균 승선인원이 150명으로 줄어들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선사측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적자액만 20억원에 이르며 올해도 현재까지 30여억원의 적자가 추가되는 등 지난 2년간 총 적자만 53억원에 이르렀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 중단을 결정한 4114급 쾌속 여객선인 '오렌지호'에 오르고 있는 장흥발 제주 성산포행 승객들. 최근 전남~제주 간 노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난에 시달리자 선사 측이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측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중단되고, 선박 여행 기피현상이 심화된 데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항만지역이 완도(쾌속선 포함 2곳 선사)와 목포, 여수, 해남(2시간대 쾌속선) 등으로 늘어나면서 제주를 오가는 전남지역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난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선사측의 설명이다.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당장 장흥지역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등 주

요 관광지의 이용객 감소 등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사측은 최근 장흥군에 "여객선 선박 엔진의 고장이 잦고, 누적된 적자로 더이상 운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타지역 선사를 상대로 운항 허가권 인수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같은 선사측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선사내부적으로 장흥 노력항 철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오렌지호 JH페리 회사는 경북 포항에 있는 대이그룹이 모기업으로 국내 해

운업계 중 대표적인 여객선 운항 선사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0년 장흥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중 하나로 110억원을 들여 노력항에 방파제와 물양장, 관리사무소(음식점, 특산물판매점, 편의점 등), 주차장 등을 갖춘 상태지만, 오렌지호의 운항 중단으로 관련 시설물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곳에는 청원경찰(2명)과 행정요원, 미화원 등 4명의 공무원도 파견 근무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日 피폭 감나무 2세 공개되나

'시간의 소생' 감나무심기, 25일 광주서 포럼
훼손 우려에 중의공원서 비공개 육성 중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원폭 투하로 인해 모든 생물이 사멸했지만 감나무 한그루가 살아남았다. 1994년 수목 의사인 에비누마 마사유키는 이 감나무에서 2세를 연생(連生)시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운동을 시작했다. 1996년 현대미술가 미야지마 타쓰오가 이러한 활동을 예술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어 세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피폭 감나무 2세' 식목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시간의 소생' 감나무프로젝트 실행위원회가 발족돼 23개국 250여곳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제자가 참여한다. 수목의사 에비누마 마사유키와 미야지마 타쓰오는 감나무 프로젝트가 무슨 활동인지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이어 '도쿄아트포인트계획' 디렉터 모리 쓰카사가 '피폭 감나무를 예술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고, 김정훈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감나무의 상징성과 한일 작가의 반전평화 정신에 대해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시간의 소생' 감나무심기 실행위원회가 종전 70주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시간의 소생' 감나무프로젝트, 광주에서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피폭 감나무를 통해 인류에게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위협성을 고발하고,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활동이다.

광주에서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일본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씨의 제안으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 등으로 관련 시설물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곳에는 청원경찰(2명)과 행정요원, 미화원 등 4명의 공무원도 파견 근무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피폭 감나무를 통해 인류에게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위협성을 고발하고,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활동이다. 광주에서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일본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씨의 제안으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 등으로 관련 시설물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곳에는 청원경찰(2명)과 행정요원, 미화원 등 4명의 공무원도 파견 근무중이다.

또 노치환 '이수현 의인문화재단설립 위' 사무총장이 '인류공영과 한일 우정 나무로서 또 생명나무로서 역할하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하정웅 명예관장이 '나가사키 피폭 감나무와 나'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중의공원에서 비공개로 관리해온 피폭 감나무의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한달 만에 고사한 첫 식재 나무가 당시 반일 감정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라 육성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일 양국에서 6명의 발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군 상비병력 축소 시기 10년 늦춘다

국방개혁개정안...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가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

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 감축 목표연도가 또다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개혁 목표 연도와 병력



메르스 여파 관광수입 최대 1조 9천억 감소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탓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최소 4.64%에서 최대 9.57%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광수입은 8815억~1조 903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르스 발생에 따른 관광부문 전망·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의 1420만명에 비해 4.64~9.57% 감소한 1357만~128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작년보다 8815억~1조90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목표 대비로는 3조 7218억원의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직원 근무평정순위 제멋대로

서류 조작 해남군 공무원 '정직'·군수는 '주의'

감사원 감사서 적발

제멋대로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조작한 해남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동점검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1년 2월~2015년 4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원 28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남군 인사담당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다만, 해남군수의 경우에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원모집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구분	근무처	응시자격
연구개발	경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 임베디드, VHDL 설계 유경험자 전자회로 및 PCB 설계 유경험자 PC기반 프로그래머
설치 및 A/S	경력	광주,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공자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생산/관리	경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 전기, 전자 전공자
전화응대(A/S)	신입, 경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공장장(황칠추출)	경력	황칠코리아(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추출 해당부분 10년 이상 전문 종사자(연봉: 6,000~7,000) HACCP, GMP 유경험자
인바운드	신입, 경력	황칠코리아(광주/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대표이사 수행비서

공통사항: 1. 남자의 경우 병역필 및 운전 가능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1.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 1부
- 2) 자기소개서 1부

3. 원서접수 및 문의사항

- 1) 접수기간: 2015년 10월 19일(월)~2015년 10월 31일(토)
- 2) 접수방법: E-mail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3)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10(소촌농공단지) 총무부 (우:506-803)
- 4) 문의사항: (주)시온테크닉스 총무부 (062)944-3400

E-mail : ziontech@daum.net

(주)시온테크닉스 / (주)황칠코리아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뭏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